

| 언어논리영역 |

| |
|------|
| 응시번호 |
| 성명 |

| |
|----------|
| 문제책형 |
| 신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문제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한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 및 해설은 답지 및 강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이의제기 방법 :
 - 매회 강의 종료 후 강사에게 직접 제기
 - 카카오톡 채널 "신성우의 언어논리"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
3. 이의제기 결과 확인
 - 강의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이의제기 결과 제공



**본 모의고사는 12 13 인시 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시 대비용 독해 및 추론 문제 풀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5급 공채보다 50% 정도 더 깁니다. 감안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대보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마땅히 화양 서원에 있는 만동묘의 제사를 폐지하여 공경하고 근엄히 하는 실상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럭저럭 미루어온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지금 이를 분명히 밝혀 더없이 중대하고 엄숙해야 할 예법이 들쭉날쭉하게 된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겠다. 화양서원에 있는 만동묘의 제사는 이제부터 정지하라.

(나) 대보단과 만동묘를 설치한 것은 모두 옛 임금을 잊지 못하는 인정과 춘추의 대의에 입각하여 나온 것입니다. 만동묘는 송시열이 초나라 유민들이 소왕을 제사 지낸 의리를 적용하여 제사에게 부탁해 이루게 한 것입니다. 즉, 만동묘는 선비와 백성이 사사로이 정성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조께서 친히 글을 지어 화양서원에 제문을 내리셨고, 또 어필로 사액(賜額)하여 표창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중복되게 설치했다고 하여 그 하나를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대왕대비께 여쭙어 화양서원에 있는 만동묘의 제사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환수하게 하소서. 아울러 신이 덧붙여 아뢴 일이 있습니다. 화양서원의 유림들이 존엄한 자리라는 것을 빙자하여 아랫사람들을 침탈하는 등 그 폐단이 한없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걱정하며 탄식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단속하여 금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다) 몇 년 전에 만동묘의 제사를 정지하게 한 것은 동일한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이 궁궐 안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때, 도학과 충절에 공덕이 있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여러 곳에 세워 거듭 제사하니, 이것이 어찌 도리어겠는가? 또 서원에 신주를 모시는 것은 삼대(三代)의 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에 안향을 모시고 사모하는 뜻을 보인 이후 서원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한 사람을 거듭 제사하는 곳이 많게는 4~6개의 서원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향현(鄉賢)이라고 해서 서원을 세우고, 결국에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사액(賜額)하게 되는데, 유림들이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는 등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폐단이 이 가운데 있다. 비록 사액 서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대한 한 서원 이외에 거듭하여 설치된 서원은 예조판서가 대원군에게 품의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라.

(라) 만동묘의 제사는 복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300년 동안 신하로 섬겨왔고, 왜란 때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었으니 자손만대에 걸쳐 보답할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명사(明史)』를 살펴보니, 천하의 서원을 철폐한 것이 두 번 보이는데, 서원 철폐 후 왕실이 뒤집혔으니, 이것이 어찌 좋은 일로서 사람들이 원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명령을 환수하소서. 다만 제사를 그만둔 서원에 대하여는 그 인물의 일생을 논하여 덕망도 공로도 없어 음사(淫祠)에 가까운 서원은 모두 폐지하되, 도덕이나 절의가 한 마을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분향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며, 온 나라와 천하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주(州)마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 곳곳에서 높여 보답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 보 기 >

ㄱ. (가)와 (다)는 만동묘 제사를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고 (나)와 (라)는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ㄴ. (나)와 (다)는 사액서원의 유림들이 아랫사람을 침탈하는 것을 폐단으로 인식한다.

ㄷ. (다)와 (라)가 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 중에 공통되는 내용이 없다.

ㄹ. (다)와 (라)가 만동묘의 제사 대상을 증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ㅁ. (나), (다), (라)는 여러 서원에서 같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현상을 문제로 인식한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존 로크의 『정부론』은 왕이 신탁에 의해서 지배한다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다. 정치적 환경이 전혀 달랐던 영국 시민전쟁 이전에 쓰여졌지만, 1680년에 발간되었던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제 : 자연적 왕권』이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필머의 군주는 홉스의 군주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다. 적어도 홉스의 군주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필머의 주장에 따르면 왕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이 된다.

17세기의 역사는 필머의 편이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왕정을 채택했고 몇몇 왕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독재국가 시대가 문명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왕정이 비도덕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대안은 몇 사람의 현인들에 의한 귀족정치였다. 플라톤은 국민 중에 사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에서 폭정이 이어진 후 기원전 507년에 아테네에는 민주정부가 출현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적 지배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투키디데스와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고 고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명성을 가진 아펠레스의 작품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테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기원전 411년에 무너져버렸다.

그러나 최선의 정부 시스템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정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플라톤 시대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지도자보다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이었다.

홉스에게 그런 문제는 2차적인 것이었다. 괴물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지도자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지도자가 없으면 이웃과의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더 집착했다. 그도 역시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기 전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더 높은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성만 따라 함께 사는 온화한 에덴이었다. 여기에서 이성은 ‘살인하지 말라’처럼 자명한 진리를 존중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원칙을 따른다는 뜻이다. 이성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활,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홉스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인간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홉스의 견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로크만이 아니었다. 그의 후원자였던 새프리베리 백작 3세 에슬리 쿠퍼도 홉스가 친절, 우정, 사교성, 함께 대화하기, 자연에 대한 애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로크의 신뢰는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신에 의해 유도된다는 그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무신론자였던 홉스는 그런 장밋빛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결국 로크는 낙관적인 견해 덕분에 덜 억압적인 지배시스템을 주장할 수 있었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은 지도자들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로크는 정부가 무도한 독재정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고집했다. 그는 리더십을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의회, 왕,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의회, 대통령, 대법원이 그에 해당한다.

인간본성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로크도 범죄자와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로크의 대안은 자연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무자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자연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덴도 반드시 평온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면 그런 제약은 더 이상 개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다. 자연법은 입법부에 의해서 공포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으로 바뀐다. 사실 법, 질서,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특히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뭉쳐서 정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로크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정치철학의 시금석이다. 임마누엘 칸트도 역시 가정적인 국가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국가의 지배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칸트의 정치적인 신념은 프로이센의 빌헬름 폰 훔볼트의 『국가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어졌다.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은 개인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런 진보적 철학의 뿌리에는 밀에 의해서 정의된 공리주의와 온화한 사회적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국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철학자들도 있다. 루소는 문명은 퇴화된 것이고 오로지 원시적인 야만성만이 고귀하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한 낭만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다. 루소는 1754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고, 그런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법뿐이라고 주장했다.

- ① 플라톤은 좋은 리더십을 전제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찬성했다.
- ② 로크의 『정부론』을 반박한 것이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필머의 『가부장제』이다.
- ③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왕정체제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었다.
- ④ 로크에 따르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이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에는 지도자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독재정부를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했다.

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문에 장르의 하나로 정착된 신화의 개념은 늘 문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신화는 그저 낭만적 열정에 따른 숭배 혹은 미혹으로 간주되는 타기(唾棄)의 대상이었다. 신화를 글 안에 가두고, 예술적인 범주로 환원시키는 신화에 대한 통념은 과연 타당한가? 아마도 신화는 그보다 더 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영향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집요한 것일 터이다.

신화를 문학의 하나로 보는 장르론적 사유에서 벗어나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화는 그것과 연루된 인지와 행위를 다른 어떤 담론보다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신화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으며, 이는 곧 신화가 갖는 강력한 지표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표성으로 인해 우리는 신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화의 지표성은 신화를 개념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개념이 확정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체계 어딘가에 제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 확고한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담론이 그것과 지표적으로 연루된 현실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러한 세계는 그 확고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화의 개념은 그것이 갖는 지표성으로 인해 의미체계 안에서 늘 불안정한 위상을 갖는다. 그 때문에 신화는 강력한 담론이면서도 늘 해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화의 해체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화는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다. 이를 뮈토스(mythos, 신화 체계)와 로고스(logos, 이성 체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신화에 내포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지만, 신화는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한다. 혹은 탈신화를 통해 얻어진 합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화는 늘 명사가 아닌 동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이러한 해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수반되기에 신화는 ‘신화함’이거나 ‘신화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을 필연적으로 함의한 역설적 동사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화는 사유의 한 형태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기호 작용이라 규정됨으로써 그것은 존재론적이면서 인식론적인 모든 현상에 끌고루 침투한다. 신화가 없는 곳은 문화가 없는 곳이고 인간이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신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신화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화는 더욱 위협하고, 잠재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신화를 더욱 노출시키고, 실재화시키며,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탈신화일 터인데, 그러한 사유는 우리의 문화를 맹목으로 얼룩진 부패한 모습이 아닌 활발한 모습으로 숙성된 발효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 ①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 신화는 역동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한다.
- ② 기호작용인 신화를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면 신화의 개념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 ③ 신화는 위협하고 잠재적이며 무의식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탈의식화가 필수적이다.
- ④ 신화의 지표성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므로 확고한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⑤ 신화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담론이므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는 예술적 장르 안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워낙 흔히 쓰이는 말이라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다. 가령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다. ‘과유불급’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풀이해야 옳다. 본래 중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풀이하면 모자란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 되므로 이 말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잘못된 해석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문화의 특색 탓인 듯하다. 예컨대 어느 신문이나 있는 ‘오늘의 운세’란에는 이런 문구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과유불급이니 겸손하라.”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므로 여기에 쓰인 ‘과유불급’에는 넘침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모자람보다는 넘침을 경계했던 것이 우리 문화의 특색이기는 하지만, 실은 공자의 말대로 모자라는 것이나 넘치는 것이나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적정량’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컵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물의 적정량은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적정량을 재는 계량컵이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옛 사람들이 넘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적정량을 초과해 화를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란 선에서 만족하고 멈출 때 뒤탈이 적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우쳤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을 오독할 정도로 겸손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야 조금 모자랄 때 만족하는 것이 처세의 비법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어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 하고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좋은 정치란 곧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정량을 찾아주는 계량컵과 같은 것이다. 모자라는 곳은 채우고 남는 곳은 덜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적정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정치는 ‘과잉’이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과유불급’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는 지금보다 더 ‘과’할 필요가 있다.

- ① 글의 첫머리에 널리 알려진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②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음으로써 주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하나의 소재를 반복해서 활용함으로써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의 말미에서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8. 다음 ㄱ~ㄷ이 모두 참이고 ㄹ이 거짓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상징(symbol)을 기호(sign)와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기호가 된 사물은 특정한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기호는 단일한 의미만을 경험주체들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교통 신호등에서 붉은색은 정지 이외의 다른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으로 기능하는 사물이 가지는 의미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붉은색이 상징인 경우, 그것은 권위나 정열, 사랑이나 처참함 등을 아울러 뜻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사물의 단일한 의미만을 정확한 지식으로 ‘학습’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중첩된 사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물에서 여러 의미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사물은 ‘의미들의 더미’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모두 지닌 채, 그 사물은 스스로 존재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의미들을 통해 그 사물의 현존을 승인한다.

한편 사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이러하다. 기호적 사물은 실은 비현실적인 사물인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험을 의도적으로 어떤 틀에 맞추어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무릇 사물은 그것을 경험하는 삶의 주체가 자기 나름의 실존적 맥락에서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승인할 때, 비로소 그에게 현존하는 사물이 된다. 그러므로 사물이 기호인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단일한 의미에 순응하는 것이 그 사물과의 삶이지만, 사물이 상징인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내는 다양한 의미를 끊임없이 풀이하는 것이 그 사물과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징은 ‘해석 의존적’인 것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즉, ‘성현(聖顯)’을 이러한 상징의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현도 상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상징은 구체적인 사물들, 곧 ‘역사적 실재’이다. 그러므로 성현을 상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무리 성현이 ‘다름’을 경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경험이 드러난 모습임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엘리아데가 “종교는 상징이다.”라고 말하기보다 “상징은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이해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 때 비로소 ‘성현을 경험하는 일’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상이 된다.

엘리아데가 종교 현상을 설명하면서 성현 대신 상징을 선택한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선 기호는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은 상이하고 중첩된 복합적인 의미를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총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기호와 같이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사물과 근원적으로 조화롭지 않으면 그 사물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된 의미를 지탱하지 못한다. 상징의 조작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작된 상징이 기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 <보 기> —
- ㄱ. 상징은 기호에 비해 종교적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 ㄴ. 사물의 현존에 대한 승인은 경험적 사물인식의 산물이다.
 - ㄷ. 상징에 대한 총체적 수용은 비현실적 사물인식으로 귀결된다.
 - ㄹ.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는 ‘역사적 실재’이므로 실제적으로 수용하기 쉽다.
 - ㅁ. 현실적으로 사물에 대한 경험은 기호적 사물에 대한 인식과 달리 다양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포용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 ㄱ. 날씨가 시원하면 기운이 난다.
- ㄴ. 날씨가 시원하고 기운이 나면 배가 고프다.
- ㄷ. 날씨가 시원할 때 배가 고프다면, 집중이 되지 않는다.
- ㄹ. 집중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 ① 집중이 되지 않는다.
- ② 마음이 차분하다.
- ③ 날씨가 시원하면 배가 고프다.
- ④ 기운이 난다.
- ⑤ 집중이 되거나 마음이 차분하다.

9. 다음 글의 ㄱ~ㄴ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저 왕권에 대한 위대한 옹호자 역시 이러한 정도의 저항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가 그것에 첨부한 두 가지 제한은 (ㄱ) 진실이다. 첫째, 그는 저항은 경외감(reverence)을 동반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저항은 복수나 처벌을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이유이다.

첫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반격을 가하지 않고서 어떻게 힘에 저항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떻게 경외감을 갖고 공격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가 이해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말이다. 타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만으로 상대의 맹공에 저항하거나, 그렇게 맹공을 피벗는 상대방의 확산과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칼조차 손에 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존경하는 자세로써 저항하려는 자는 금방 그 저항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그러한 방어가 오로지 자신에게 더 심각한 불편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략) (ㄴ)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서 어디서든 예의바르고 정중한 군봉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ㄷ) 하지만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양쪽을 같은 입장에 놓는 전쟁 상태와 같아서 이전의 모든 경외감, 존경심, 우위의 관계를 무효화한다. 따라서 남아 있는 우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자에 대항하는 자가 그 공격자에 대해 갖는 우위이며, 저항하는 자가 승리할 경우 공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평화를 해친 것과 또 그렇게 해서 야기된 모든 해악들에 대해서 말이다.

- ① ㄱ: 정치 현실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ㄴ: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② ㄱ: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복수와 처벌을
 ㄷ: 즉, 그 열등한 자가 우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③ ㄱ: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ㄴ: 복수와 처벌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④ ㄱ: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ㄴ: 저항과 처벌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⑤ ㄱ: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정의(正義)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게 빚지고 있는 동등한 관심 혹은 공정성 의무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르면 정의의 표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들은 이 관심 혹은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로서 존재한다. 훌륭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주권국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동료 시민들과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정의의 요구들을 위한 도덕적 기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리가 이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주권 국가들이 분리돼 있다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행한 장애가 된다. 우리가 동등한 기회 및 공정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사회 안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동일한 체계가 세계 전체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일관적이다. 부국이 아니라 빈국에서 태어나는 우연한 사건은, 같은 나라 안에서조차 부유층이 아니라 빈민층에서 태어나는 일만큼이나 사람의 운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 관점은 정당한 민주적 지배체제를 더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유토피아적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본질적으로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德)이다. 정의가 제도의 덕이라는 생각은 정의는 정치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제도들의 존재, 특히 주권국가의 존재는 정의의 가치가 적용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료 시민으로서 상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는 정의의 내용 및 절차를 채우는 공정성과 동등성의 표준에 의해 평가받게 되어 있다.

국가의 영토와 인구는 우연적·역사적 이유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권에 의해 작동하는 법적·사회적·경제적 제도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의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는 다른 그 어떤 의무, 예컨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정의는, 우리가 공유하는 제도들을 통해 우리가 강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빚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결사적(結社的) 의무이다.

— < 보 기 > —

ㄱ. ㉠에 따르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로서 개인의 덕이지만 ㉡에 따르면 정의는 정치적 가치로서 제도의 덕이다.

ㄴ.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도덕적으로 요청되지만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요청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ㄷ. ㉠에 따르면 정의는 주권국가를 매개로 실현되지만 ㉡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정의의 가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이다.

ㄹ. ㉠은 유토피아적 정의관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지만 ㉡은 현실적 정의관으로서 연구주의 가치관을 지향한다.

ㅁ. ㉠에 따르면 일관성의 태도는 정의의 의무의 범위를 항상 확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에 따르면 정의의 의무의 범위와 결사 관계의 범위는 항상 동일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ㄴ, ㅁ ⑤ ㄷ, ㅁ

11.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8세기 후반, 오늘날 ㉠ 철학과 ㉡ 과학의 '결별'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별을 먼저 요구한 쪽은 '과학'을 옹호 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경험적 관찰로부터의 귀납에 기초한 이론화이며, 이 관찰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그 관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이상학적 연역은 유추일 뿐이며 그 어떤 진리의 가치도 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며, 이것은 결별의 결과였다. 근대의 대학은 중세 대학의 골간 위에 세워지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세의 대학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의 대학은 봉급을 받는 전업교수들을 두었다. 교수들은 대부분 성직자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교수진이 아니라 학과나 학과장 아래 소속되어 있었고, 각 학과는 자신들이 특수한 전공학문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 편성한 학습을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중세대학의 교수진은 신학·의학·법학·철학 등 네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19세기가 되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철학 교수진이 두 개 이상의 교수진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한쪽 교수진은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또 한쪽은 인문학을 담당하였다. 후자는 예술, 문학 등으로 불리거나 옛 이름인 철학을 교수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나중에 스노(C. P. Snow)가 '두 개의 문화'라고 부른 것에 따라 제도화되었는데, 이 두 개의 문화는 전쟁상태였다. 양쪽 다 자신만이 지식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 혹은 적어도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 쪽에서는 경험적인 연구와 가설의 검증을 강조하였고, 인문학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하였다.

과학은 인문학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지식이 통합되어 있던 지난 시기에는 진·선·미에 대한 추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선이나 미의 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진리만 추구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선과 미에 대한 추구는 철학자들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 분업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은 두 개의 문화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진리의 추구와 선과 미의 추구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 ① ㉠과 ㉡의 결별을 요구한 쪽은 ㉡이다.
- ② ㉠을 연구하는 다수는 ㉠과 ㉡의 분업에 동의하였다.
- ③ ㉠과 ㉡의 결별의 결과로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하였다.
- ④ ㉡은 ㉠이 추구한 방식이 진리의 추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 ⑤ ㉠과 ㉡ 사이의 높은 장벽이 '가치중립성'이라는 ㉠의 요구를 정당화시켜주었다.

입법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입법자의 일차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바람직한 목적은 모든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즉, 입법자의 목적은 가능하고 적합한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범죄를 확고하게 예방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입법자는 범죄자가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보다 더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어떤 사람이 범죄를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입법자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목적에 필요 이상의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범죄자가 작은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수단을 통해 자신의 범죄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해악을 발생시키는 범죄수단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입법자는 범죄에 의해 발생된 해악을 막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발생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보다 형벌에 의해 발생하는 해악이 더 클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악의 크기가 더 증대된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증대시킨다는 입법자의 궁극적인 입법 원리와 배치된다.

— <보 기> —

ㄱ. 필자는 범죄와 형벌이 해악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ㄴ. 입법자는 범죄의 결과보다는 범죄의 동기를 기준으로 하여 형벌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ㄷ. 다양한 범죄들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의 크기를 양적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없다면 필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화된다.

ㄹ. 필자는 범죄에 대한 응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ㅁ.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수준을 결정할 때 범죄자의 교화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ㄹ, ㅁ

13. 다음 중 논리의 전개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자가 된다. 모든 운전면허소지자는 성년자이다. 따라서 어떠한 미성년자도 운전자가 아니다.
- ㄴ. 어느 국회의원도 급진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인들은 비급진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비정치인들은 비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 ㄷ. 어떤 예술가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주의자는 검소하다. 어떤 예술가는 검소하기 때문이다.
- ㄹ. 모든 회의 불참자는 면제받지 못한다. 부지런한 모든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다. 따라서 모든 비면제자는 게으르다.
- ㅁ.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연애를 열심히 한다. 저 대학생은 연애를 열심히 한다. 따라서 그는 공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 ㅂ. 한국이 9회 경기를 안이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대만에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9회에서 한국은 안이한 플레이를 보였다. 그래서 한국은 대만에 지고 말았다.
- ㅅ. 어떤 비흡연자는 성직자이다. 왜냐하면 어떤 흡연자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어떤 사람은 비성직자가 아니므로.
- ㅇ. 모든 소설가가 낭만주의자는 아니지만 모든 이상주의자들은 낭만주의자이고 어떤 소설가들은 그림 애호가가 아니므로 모든 그림 애호가는 이상주의자이다.

- ① ㄱ, ㄴ, ㄷ, ㅅ
- ② ㄱ, ㄷ, ㄹ, ㅅ, ㅇ
- ③ ㄴ, ㄷ, ㄹ, ㅅ
- ④ ㄴ, ㄹ, ㄷ, ㅅ, ㅇ
- ⑤ ㄴ, ㄹ, ㅂ, ㅅ, ㅇ

14. 다음 글을 읽고 ㉠을 구성하는 표현어들을 ㉡에 적용하였을 때 그 최종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짚지 못한 것을 고르면?

케팔로스: 노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의 마음은 갖가지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완숙한 노년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갖가지의 욕망들이 뺏치기를 그만두고 숙여지게 됩니다. 그건 노예가 광포한 주인들한테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의 원인이 있을 뿐이니, 소크라테스 선생, 그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품의 훌륭함입니다. 사람이 절제할 줄 알고 쉬 만족할 경우에는, 노령이 주는 신체의 힘듦과 온갖 불편함 속에서도 적당히 견디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한테는 노령도 젊음도 다 견디기에 힘들 겁니다.

소크라테스: 케팔로스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르신 말씀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르신께서 노령을 수월하게 견디어 내시는 것은 성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게겐 위안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 말씀입니다.

케팔로스: 옳은 말씀입니다. 실상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가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경우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아테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의 말씀이 적절한 거죠. 어느 날 테미스토클레스 앞에 듣지도 못한 세리포스라는 작은 나라 출신의 어느 평범한 이가 나타나서는, 테미스토클레스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유명한 것이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출신 나라 때문이라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꾸 하셨죠. ㉠“내가 세리포스 시민이어도 유명해질 수 없었겠지만, 당신이 아테네 시민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고 노령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 똑같은 말이 들어맞는 거죠.

| | 표현어 | 최종 문맥적 의미 |
|---|-------------|------------------|
| ㄱ | 나(=테미스토클레스) |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
| ㄴ | 세리포스 시민 | 보잘 것 없는 사람 |
| ㄷ | 유명해질 수 없다 | 노령을 수월하게 견디지 못하다 |
| ㄹ | 당신 | 훌륭한 성품을 결여한 자 |
| ㅁ | 아테네 시민 | 돈 많은 사람 |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15. 다음 글에 대해 반박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고르면?

1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완전한 행복은 실천적인 삶보다는 철학적인 삶, 즉, 관조적인 삶 안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행복은 실천적인 덕이 아니라 철학적 지혜의 발휘를 통해 실현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조적 활동이 신적 활동과 가장 닮았다. 신의 활동은 관조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자족(自足)은 다른 무엇보다도 관조적 활동과 관련된다.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정의로운 사람이나 다른 덕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경우, 정의로운 사람은 그가 그 사람에 대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상대방, 혹은 그들과 더불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동반자를 필요로 하며, 절제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또 그밖의 유덕한 사람들 각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관조할 수 있으며, 그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가 동반자를 가지면 아마 더 잘 관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가장 자족적이다.

또한 관조 활동은 그 자체로서 사랑받는다. 관조 활동은 관조한다는 사실 외에 아무 것도 생겨나지 않는 반면, 실천적 활동은 행위 자체 외의 무엇인가를 다스려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관조 활동은 해당 활동의 각 부분이 발휘되는 때 순간마다 그 활동의 목적이 실현된다. 이에 반해 실천적 활동은 해당 활동의 각 부분이 발휘되는 때 순간마다 그 활동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해당 활동의 전체가 다 종료되었을 때 이로부터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 경우에만 그 활동의 목적이 실현된다.

그리고 행복은 여가 안에 있다. 우리는 여가를 갖기 위해 여가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적인 덕의 활동은 정치 참여나 전쟁 수행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것들에 관련한 행위는 여가와 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과 관련한 행위들은 전적으로 그렇다. 누구도 전쟁을 위한 전쟁을 선택하거나 시작하지는 않으니깐. 만약 누군가 전투와 살육이 생겨나게 하려고 친구를 적으로 만든다면, 그는 완전히 피에 굶주린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의 행위 또한 여가와 먼 것이다.

- ① 행복은 활동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복한 상태는 그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것이다.
- ②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이 활동으로부터 나오게 될 어떤 사용가치 때문이다. 사용가치에 대한 기대 없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
- ③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은 협업적 활동이다.
- ④ 행복이 최고선(最高善)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좋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goodness를 찾아야 한다.
- ⑤ 어떤 사람이 철학자라고 해서 그가 곧 철학적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철학자라 해도 철학적 지혜가 없다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가) 문화는 일상이다. 문화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위의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와 서로에 대한 의미, 세상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서로 맞춰보는 실천행위이다. TV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속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축구 시합에서 저 팀이 이겼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하는 것,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를 함께 기억하는 것, 세계화가 야기하는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공유한다.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나) 문화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회의 각 영역을 가로지르며 서로 경쟁하는 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경쟁하는 탓에 특정 삶의 방식이 늘 주도적일 수만은 없다. 한 시대를 주도하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자리를 내주기도 한다. (중략) 한때 주도적이었던 문화가 시간이 지나 퇴색한 잔여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잠깐 부상하던 문화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성기의 주도 문화가 될 수도 있다. 문화는 늘 경쟁이라는 역동성을 갖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그 내부는 다양한 것으로 그리고 그들 간의 경쟁으로 채워져 있다.

— <보 기> —

ㄱ. (가)에서 말하는 문화는 개인과 집단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로부터 영향 받는 동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ㄴ. (가)에서 말하는 문화는 행위주체가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닌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가)와 (나)를 보면 문화는 시대와 행위주체에 따라 다양한 삶의 행위와 방식으로 공유되면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에 걸친 기간은 변혁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성곽 역시 크게 변모하였다. 원시취락은 신석기 말기에 이르러 호(濠)나 책(柵)과 같은 간단한 방어시설이나 토벽으로 둘러치는 토성으로 변화했다. 도시국가로 발전하고 계급사회로 이행하던 무렵에는 높은 구릉지에 수장(首長)의 처소와 신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강화되면서 성하의 주민 주거지역에도 간략한 토벽을 설치한 방어시설이 등장하였다. 은대(殷代)의 중소읍은 이러한 '산성식(山城式)' 도시가 일반적이었다.

서주~춘추시대가 되면서 주거지역을 둘러싼 외벽이 강화된 '내성외곽식(內城外郭式)'이 출현했다. 이 때 외벽을 '곽(郭)'이라 하고 내벽을 '성(城)'이라 한다. 즉, 내성과 외곽이라는 이중구조가 명확해지는 시기였다. 이 내성외곽식은 '성주종곽식(城主從郭式)'에서 점차 외곽이 강화되어 내성을 능가하는 '성종곽주식(城從郭主式)'으로 변화했다. 이후 성의 의미가 희석되면서 성과 곽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성곽일치식'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성이란 내성을, 곽이란 외곽을 지칭하는 상이한 호칭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곽구조는 산성식→성주종곽식→내성외곽식→성종곽주식→성곽일치식으로 변한 것이다.

곽내의 주민은 대부분 농민으로 곽외에 농경지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곽외의 가까운 토지는 곽내의 농민들이 도바로 왕복 가능한 생산성이 높은 곳이었고, 이러한 공간적 범위는 교(郊)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장안성의 교지역은 지형적 제약 때문에 북교보다는 남교와 서교의 공간적 범위가 광대하였다.

이 지역에는 사대부들의 소유였던 장원이 분포하였는데, 당시 장원은 사대부들의 경제적 거점이었다. 그들은 정치활동의 거점으로 성내에 저택을 두었고 교내(郊內)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향촌을 두었다. 장원은 장안성으로부터 대체로 도보 33리의 거리 내에 분포하였다. 당령(唐令)에 의하면 성곽으로부터의 일일생활권은 말 70리, 도보 50리, 마차 30리였으므로 장원의 분포는 이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도성의 배후지인 교(suburb)의 공간적 범위였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내성은 거의 소멸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외곽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시에 방어수단이었던 내성 대신 외곽을 강화하면서 성과 곽의 구별이 소멸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성곽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속어로 통용되지만 사실은 내성과 외곽이 일체화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

춘추 전국시대는 도시국가를 탈피하여 영토국가를 형성하는 커다란 변동기였다. 대읍을 중심으로 동맹관계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연합체라는 점(點)과 선(線)의 국가관계로부터 대읍이 중·소읍을 병합하여 면(面)으로 확대해 가는 영토국가가 형성된 것이다.

— < 보 기 > —

ㄱ. 곽은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둘러싸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ㄴ. 성곽구조 변화의 배경에는 국가형태의 변화가 존재하였다.
 ㄷ. 내성외곽식 시대의 성과 곽의 의미는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이다.
 ㄹ. 원시취락의 등장 이후 성의 의미는 강화되어 가다가 성곽일치식시대의 도래로 인해 그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원자의 질량은 질량 분석기로 구할 수 있다. 수소 원자의 질량은 $1.67 \times 10^{-27} \text{kg}$ 으로 이는 아주 작게 느껴지겠지만, 전자의 질량보다 1,835배나 더 크다. 한편, 원자의 크기는 기름방울 실험으로 측정한다. 우선 부피를 쟀 기름방울을 물의 표면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면 물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기름층은 기름분자와 높이가 같다. 기름방울이 형성한 얼룩의 넓이와 기름방울의 부피를 이용해 기름층의 높이와 기름분자의 지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의 대략적인 지름도 알 수 있다. 기름 얼룩은 물의 표면에 기름과 섞이지 않는 양치식물의 일종인 석송의 포자를 뿌려 눈에 보이게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원자의 지름은 약 10^{-10}m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톰슨은 기체 방전에서 전자가 양전하를 띤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로써 그는 전자가 원자의 성분이며 실험에서 원자로부터 분리된다고 추론했다. 전자를 방출하고 남은 입자는 전자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고 양전하를 띠게 된다. 즉, 이온이 생기는 것이다(이 경우 이온은 양전하를 띤다). 톰슨에 따르면 원자는 균일하게 양전하를 띤 구 모양을 이루며, 이 구 속에 마치 케이크 속의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 있다.

1900년경 원자에 다른 입자를 쏘아 충돌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상호작용을 통해 원자의 성질을 알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다. 먼저 레나르트는 알루미늄박에 전자를 쏘았지만, 놀랍게도 전자는 알루미늄박이 없는 상태와 똑같이 그대로 통과했다. 레나르트는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자의 내부는 우주와 같이 텅 비어 있다.” 그 다음으로 러더퍼드는 α 입자와 얇은 금박으로 실험했다. α 입자는 전자보다 훨씬 크고 무겁지만, 원자는 이번에도 금박이 마치 빈 공간인 것처럼 대부분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수의 입자들이 입자의 진행 방향과 다른 각도로 산란되었고, 일부 입자들은 입사된 방향으로 산란되기도 했다.

— < 보 기 > —

ㄱ. 기름방울 실험에서 원자의 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기름분자가 얼마나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ㄴ. 러더퍼드는 원자의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을 것이다.
 ㄷ. 레나르트와 러더퍼드의 실험을 종합하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설득력을 잃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9~20)

(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 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함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고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이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속의 고소권제한규범은 특정한 윤리적 내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형성영역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

이 법률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직계존속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관계로서,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해관계나 수지타산의 논리보다는 이해와 사랑 및 헌신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집단이며, 이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사회에 대한 버팀목으로서의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불가피하게 도덕과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법의식의 근저에는 근대 서구에서 비롯한 개인주의적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인 양육과 보호에 정성을 기울이고,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존·비속 관계의 규율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여 이를 체화시켜 왔고, 그 결과 근대 서구의식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법적 규율보다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다른 친족들이 해당 존속을 고소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존속이 완전히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된다. 국가가 문화나 윤리의 보호를 입법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이를 물적·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은 전통윤리의 고양을 위해 자기의 피해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조건 내지 수사의 단서로서 기능하고, 고소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가정의 기본질서 유지를 넘어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정식기소와 재판으로 곧 이어지는 않는다. 사건의 발생경위나 존·비속 간 관계의 특수성, 존속의 악성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고소각하 내지 불기소에서부터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이 있어 개별적 사건의 실체에 맞게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존속이라는 이유로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개별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만이 존·비속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헌법과 법률의 구분을 인정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한다.
- ③ (가)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데 반해 (나)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다.
- ④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는 반면에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 ⑤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는다고 본다.

20.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법규범과 윤리규범은 구분된다.
- ② 모든 권리는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 ③ 윤리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고소권은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반한다.

2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경제인류학이 좀 더 응용적 성격을 띠게 되고, 많은 경제인류학자들이 개발 기관에 취업함에 따라 경제인류학은 1970~1980년대에 개발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 특히 농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냉전의 긴장 또한 이러한 연구에 자극을 주어 경제 철학의 문제들이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에트의 지배와 세계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케네디 시대의 철학 중 하나는 빈곤국들에서의 공평한 발전을 장려하여 그들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대신 서구와의 동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평화봉사단', '평화를 위한 식량' 그리고 녹색 혁명의 활동 초기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 전쟁은 이 같은 생각이 인류학자들의 환상임을 일깨워주었다.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이 오용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이 때로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경제인류학자들 다수가 개발 이론의 가정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과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 들었다. 그 결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종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녹색 혁명은 식량 증산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대개의 경우 가난한 농부들을 땅에서 몰아내어 도시 빈민가에 우글거리게 만들었다.

경제인류학자들은 현장 경험에 입각한 연구 성과를 통해 빈곤의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 측의 '비논리적', '비합리적' 나아가 문화적 편견에 의한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자원을 가지고서도 종종 깜짝 놀랄 정도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며 또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다. 경제인류학은 열대 우림의 파괴, 마약 거래, 도시의 불결함, 대량 이주, 암시장과 지하 경제의 성장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는 정부기관들, 세금 체계, 불공정한 정책, 부패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기타 주요 국제 기관들이 각국 경제를 개방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소유의 공공사업 및 공기업을 매각하고, 공무원을 대량 감원하며, 빈곤층 대상의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식량 보조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동시에 각국은 금융 시장을 개방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토착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관세를 낮춰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틀어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진두지휘한 철학이 '신자유주의'이다. 이 모든 조치들이 빈국들의 전통적 수출품들인 면·커피·땅콩 등의 가격 하락과 예이지의 창출과 맞물리자 생활수준의 급속한 저하,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사망의 증가, 폭력과 사회적 소요의 만연 등이 나타났다. 경제인류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최근의 '개발' 정책들의 실패 사례들을 연구하고 증언해왔으며 이 모든 실패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권고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도전해 왔다.

- ① 경제인류학자들은 각 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 ② 경제인류학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 ③ 최근의 경제인류학은 신자유주의적 개발 프로그램에 소극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④ 개발에 관한 경제인류학의 관심은 정부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에 맞추어져 있다.
- ⑤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에 대한 경제인류학자들의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빈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빈민들 자신들의 행위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22. ㄱ~ㄷ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외면이 내면을 도와주지 않는 한 외면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예술은 혼의 표현이라네. 외면적인 모습들은 인간의 내면적 영혼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네. 곧 진정한 예술은 혼을 도와 내면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일세. 인간의 예술작품은 영혼이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돕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네.

B: 그러나 예술가들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보거나 발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A: 나는 그 순서를 뒤집고 싶네. 나는 (ㄱ). 모든 진리, 진실된 관념만이 아니라 진실한 얼굴, 진실된 그림이나 노래는 모두 정말로 아름답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리 안에서 미를 보지 못하네. 대개의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치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눈 먼 사람처럼 대한다네. 사람이 진리 안에서 미를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술이 일어날 것일세.

B: 미가 진리로부터 진리가 미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까?

A: 나는 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고 싶네. 만일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것일세. 용모가 잘 난 여성이 반드시 아름다운가?

B: 예.

A: 그녀의 성질이 사나워도 아름다운가?

B: 물론 그런 경우라면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내면의 거울일 것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천재성을 지닌 진정한 예술가는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할 것입니다.

A: 자네는 전체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네. 지금 자네는 단순히 (ㄴ) 전제하고 있네. 진실한 예술가에게는 외면과는 동떨어져 혼 안에서 진리와 함께 빛나는 얼굴만이 아름다운 것이라네. 그래서 나는 (ㄷ) 한 것일세.

- ① 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네
 ㄴ: 참된 예술가라면 외면을 통해서도 진정한 미를 발견한다고
 ㄷ: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가 없다고
- ② ㄱ: 미의 본질을 통찰한 후에 비로소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네
 ㄴ: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ㄷ: 참된 예술가는 영혼을 통해 작업한다고
- ③ 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네
 ㄴ: 외면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한다고
 ㄷ: 진리와 미는 연관된다고
- ④ ㄱ: 진리를 통해 미를 발견한다네
 ㄴ: 참된 미는 외면에서도 발견된다고
 ㄷ: 영혼의 진리와 이에 근거한 아름다움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 ⑤ ㄱ: 진리 안에서 미를 발견한다네
 ㄴ: 외면의 모습이 사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ㄷ: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가 없다고

23. 다음 글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나치즘]는 ‘명령은 명령’이고 ‘법률은 법률’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통해 한편으로는 군인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가들에게 족쇄를 채웠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라는 원칙은 결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명령이 범죄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때에는 복종의무가 소멸하였다. 이에 비해 ‘법률은 법률’이라는 원칙은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 이 원칙이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독일의 법률가들을 지배하였던 실증주의적 법사상의 표현이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은 둘 다 똑같이 개념적 모순이었다.

실증주의는 사실상 ‘법률은 법률’이라는 확신을 매개로 삼아 독일 법률가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에 대한 방어불능상태로 빠뜨렸다. 나아가 실증주의는 법률의 효력을 독자적으로 밀반침할 수 없다. 실증주의는 법률이 자신을 관찰시킬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미 법률의 효력을 증명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힘 위에서는 필연이 성립할지는 모르지만 당위와 효력은 어립없다. 당위와 효력은 법률에 내재한 가치 위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모든 실정법은 내용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에 기여한다. 즉 법은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라도 법이 없는 상태보다 낫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하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가치인 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이러한 가치의 서열에서 우리는 공익을 뜻하는 법의 목적성을 맨 뒤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유용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법이 아니며 오로지 법적인 것,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 유용하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갈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정적인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악법’으로서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률적 불법과 내용상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효력이 있는 법률 사이에 더 예리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입법 시에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그 때에는 법률은 한갓 악법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정적인 법도 정의에 봉사하는 질서와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나치법은 전부 효력있는 법의 품격에 이르지 못하였다.

- ① 법이 실현해야 하는 가치들이 충돌할 때 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의롭지 못한 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에 대하여는 준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의 효력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 ④ 법은 당국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총을 든 강도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명령과 결국 같다.
- ⑤ 무엇이 법인지는 입법자의 제정행위처럼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만 확인된다.

24. (가)~(다)를 읽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우리는 세상의 특정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장 관심을 쏟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생생한 시각적 경험 때문에 독특한 심리적 맹시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대상이나 특이한 대상이 나타나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 (나) 기억은 우리의 인지내용을 모두 저장하는 대신, 보고 들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만든다. 이런 연관 작업은 우리가 본 것에서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고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을 더 잘 저장하고 꺼낼 수 있도록 회상의 실마리(retrieval cues)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회상의 실마리는 유용하지만 기억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 (다) 원인 착각은 우리가 마구잡이 배열 속에서 패턴을 인식할 때 생겨나며 패턴은 우리가 패턴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온다. 인과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믿음 때문에 패턴을 그 믿음에 되도록 일치시켜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한 패턴이 종종 새로운 믿음을 낳기도 한다.

— <보 기> —

ㄱ.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해 버락 오바마에 맞서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국제문제에 더 폭넓은 경험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힐러리는 1996년 4월 보스니아 투즐라 시에 특별히 어려운 임무를 띠고 방문했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저격수의 총격 속에서 공항에 착륙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환영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우리는 기지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달려야 했습니다.” 힐러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워싱턴포스트는 그 이야기를 조사한 뒤 총격을 피해서 달리는 사진 대신에 환영사를 막 낭독한 후 보스니아 아이에게 키스하는 당시 사진을 찾아 실었다.

ㄴ. 의학박사 도널드 리텔마이어와 인지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는 15개월 간 18명의 관찰업 환자에게 매달 두 번씩 통증 정도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수집한 통증 데이터를 같은 시기 해당 지역의 기상 정보와 대조해 보았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날씨 변화에 따라 통증 강도가 달라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리텔마이어와 트버스키가 통증 기록과 당일, 전날, 전전날 날씨를 비교한 결과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ㄷ. 오토바이가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실제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2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 (가) | (나) | (다)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ㄴ | ㄱ | ㄷ |
| ③ | ㄴ | ㄷ | ㄱ |
| ④ | ㄷ | ㄱ | ㄴ |
| ⑤ | ㄷ | ㄴ | ㄱ |

25.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 다음 두 글의 공통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말 유럽연합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집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토니 블레어에 의해 다시 태어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끄는 독일 사민당의 '새로운 중도'가 그들의 라이벌인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 기민당의 정책보다 얼마나 왼쪽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냉전 시기 서유럽 최대의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냉전이 끝난 뒤 좌익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나서야 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프랑스 좌파 정부에 참여한 공산당도 권력의 변동리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정부(1871년 파리 코뮌)를 세웠던 19세기 노동자 계급의 직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버린 것은 오래 전이다. 탈냉전 시대에 좌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 사회의 좌파가 현실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 체제의 덕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좌우의 전선이 예전만큼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을 떠받치는 주된 지지계층은 예상과 달리 하층 노동자들이다. 많은 사회에서 좌파와 극우파는 한 목소리로 세계화에 반대한다. 한국의 좌파는 IMF가 요구하는 세계화의 한 측면인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만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반대한다. 반면에 한국의 우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찬성하지만 그것과 짝을 이루는 재벌개혁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대하는 태도에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진행되는 세계화는 미국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당사자가 좌파든 우파든 국적의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 노동자들과 국민전선의 관계에서 보듯이 국적이 계급의 이해관계나 대의를 넘어서는 일은 아주 흔하다. 또 노동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의견들이 생물 복제, 환경, 안락사, 마약, 교육, 총기 소지, 낙태, 민족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0년대 초의 보스니아 내전이나 1990년대 말의 코소보 내전에서 어느 쪽이 선이었고 어느 쪽이 악이었으며 어떤 처방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전통적인 좌우 개념은 효율적인 준거가 되지 못했다. 막연한 좌우의 구분 대신에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사회주의니 개인주의니 집단주의니 하는 범주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이다.

- ①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냉전의 종말을 가져왔지만 공산주의의 이념은 각국의 좌파 정당에 계승되고 있다.
- ② 많은 유럽 국가들에 사회주의 정당이 건재하지만 실제로 그 정책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요소가 많다.
- ③ 20세기 말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전통적 좌파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경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 ④ 냉전 시기 공산주의 체제 덕분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지만 그 정당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의 결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 ⑤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현실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한 원인은 냉전 시기 공산주의의 잔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 1980년대에 미국의 대형 병원들이 환자의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병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므로 환자 사망률의 공개는 당연한 것이며 환자 사망률은 특정 병원의 실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사망률 공개는 병원이 수용하는 환자의 유형, 실험적인 치료의 시도, 그리고 진료의 수준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원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병원들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위중한 환자들을 가능한 받지 않으려고 했다. 중환자들은 오갈 곳을 잃게 되고 말았다. 더 많은 병원들은 점차 실험적인 임상치료나 난치병 진료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로운 시도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진료만을 추구함으로써 병원들은 점차 차별성이 없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나) 지프(Jeep)는 SUV(Sport Utility Vehicle) 시장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 브랜드였다. 20년 전 지프라는 브랜드는 4륜구동 자동차의 동의어였다. 당시 지프는 '거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닛산과 도요타는 '민을만하다'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거침'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상반된 두 특성은 자동차 브랜드를 평가하는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두 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물론 이 두 가지 항목 이외에도 연비, 안정성, 승차감 등이 필수적인 평가항목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들이 SUV 시장의 표준적인 평가 기준이 되면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친근함, 즐거움, 활동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동차 브랜드들은 그들의 대표적 이미지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추진력, 진지함, 겸손함, 강인함과 같이 서로 모순된 이미지를 동시에 심어주 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선거 후보자를 떠올리게 된다.

- ① 치열한 경쟁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 ② 모순된 평가 항목은 서비스 품질저하를 초래한다.
- ③ 치열한 경쟁은 차별화를 약화시키고 평준화를 초래한다.
- ④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⑤ 브랜드 평가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27. 다음 글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A라 불리는 정치철학은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원칙,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인이 지닌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나) 그 체제는 어떠한 소유권도 '분배되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해 인신과 물건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자유'를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복잡하고 발전한 사회의 사람들일지라도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크루소처럼 절대적인 자유 - 순수한 자유 - 를 누린다면 그들의 (인신과 물건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은 타인의 침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 (다) 정치경제와 관련하여 이 마지막 것(재산권)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일하고 생산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이성의 지도 하에 자기의 생명을 지탱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재산권이 없다면 어떤 다른 권리들도 누릴 수 없다.
- (라)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최소임금을 법률로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독점을 금지시키며 관세를 정하고 직업을 보장하며 화폐의 공급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 A를 옹호하는 자들은 모호한 부정으로 대답한다.

<보 기>

- ㄱ. B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이 소비할 어떤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 있다 해도 정부의 개입은 억압적이며 관료적 비효율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 ㄴ. 어떤 이들은 결과주의적인 공리주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자연권 및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시장제도가 평화롭고 부유하며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 민주주의는 주로 최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 ㄷ. C에게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원리로서 시장경제의 (도덕적) 결함과 한계를 제약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 하의 자유경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선호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가족적 배경, 끈공, 필요에 있어서의 숙명적인 차이도 반영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의 불평등한 결과를 제한해야만 한다. 복지권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도출된다.
- ㄹ. D는 시장질서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자연법 및 자연권 사상을 결합시켜 시장질서의 기초인 소유권 개념

을 정당화한다. 그는 재산권의 정당성은 국가의 법령과 상관없이 수립된다고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어떠한 조세부과도 비도덕적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ㅁ. E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권리 및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을 관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권과 민권체계의 도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복지권과 민권체계 역시 재산권이나 정치적 권리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ㄴ, ㄷ
- ② ㄷ, ㅁ
- ③ ㄱ, ㄴ, ㅁ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28. (가)~(아) 중 논리 전개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애국자이다. 어떤 애국자는 달변가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주의자는 달변가이다.
- (나) 어떤 선비는 명예를 가장 중요시한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은 모두 정직하다. 그러므로 선비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다.
- (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의 동맹이다. 어떤 동방국가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방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 (라) 어떤 공산주의자도 영원히 살지 않는다. 유한한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완전한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 (마) 모든 비회원은 소탈하지 않은 사람이다. 모든 소설가는 회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탈하지 않은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다.
- (바)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가가 될 수 있다. 부지런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공무원 자격이 없다. 당신 친구 중에 아무도 정치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 친구 중에 아무도 공무원 자격이 없다.
- (사) 모든 철학자가 실존주의자는 아니다. 모든 실용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존 듀이 이론의 지지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 듀이 이론의 지지자는 실용주의자이다.
- (아) 도박은 비교육적이다. 악기 연주는 어느 것도 학생들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비교육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금지된다. 그러므로 도박은 악기 연주가 아니다.

- ① (가), (마), (사)
- ② (나), (마), (바)
- ③ (가), (다), (바), (사)
- ④ (나), (라), (사), (아)
- ⑤ (다), (라), (마), (아)

29.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0. 다음 글의 '지위경쟁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외로움과 무질서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서로 일종의 약정을 맺음으로써 사회가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결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가운데 가장 친밀한 사회는 혼인에 의한 결합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 근거한 사회이다. 사회계약은 (가)_____

전통적 보수주의는 사회를 건강한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본다. 유기체적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나)_____

이런 사회제도들과 그 제도들에서 인간의 역할은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적 다원주의를 강조한다. 정치사회는 인종적, 종족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_____

서로 다른 집단들의 상호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보수주의는 사회가 유기체적이라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가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대단히 복잡적이고 상호 연결된 실체로 파악하며 사회 개혁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을 지역공동체에 연결해 주고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막아 주는 가족이나 교회 등의 매개 제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대 보수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지지한다. 잘 조직화된 사회라면 역동적인 시장을 키워야한다고 보면서도 (라)_____

<보 기>

- ㄱ.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결사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기존의 결사체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고 동화시켜 자신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게도 한다.
- ㄴ. 사회구조와 역할을 지나치게 자주 바꾸는 사회개혁가들은 사회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자연적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
- ㄷ. 정치, 문화, 가족생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정된 사회 관계를 경제영역이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ㄹ.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확실하게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함께 공동체를 결성할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행사하던 무제한의 자유를 상호 간에 자제하자고 약속한 조치를 말한다.

(가) (나) (다) (라)

- ① ㄱ ㄹ ㄴ ㄷ
- ② ㄷ ㄹ ㄴ ㄱ
- ③ ㄹ ㄱ ㄴ ㄷ
- ④ ㄹ ㄴ ㄱ ㄷ
- ⑤ ㄹ ㄴ ㄷ ㄱ

지난 20세기 후반의 세계적 현상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의 급속한 대중화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학교교육 규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학력 상승을 가져왔다. 학생 수가 끝없이 증가하여 교육이 팽창하고 그에 따라 학력이 계속하여 상승하자 그 원인의 설명이 학문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왜 교육이 팽창하고 학력은 계속하여 높아지는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로 '지위경쟁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확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확대는 상급 교육기관으로 파급된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로 인정받고 있다.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적 사회구조를 지탱해 주던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우선 필요해진 것이 사회적 선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제까지는 신분제도 자체가 개인의 자질을 선별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으므로 선발장치는 큰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가려줄 새로운 선발장치가 필요해졌다. 현대사회도 지위구조와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선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위경쟁의 문호가 개방되었으므로 선발의 필요는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나라 역시 좋은 가문의 족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던 이전의 사회에서 취업, 승진, 결혼, 사교 등 거의 모든 사회생활영역이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학력은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며, 직업 지위,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학력사회에서는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경쟁에서 유리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인다. 그래서 학력취득을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지위획득 수단으로 학력이 작용하고 진학률의 상승을 유발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져 새로운 상위학력이 등장하는 요인이 되며,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은 한없이 계속된다.

- ① 학력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학력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학교 팽창의 원인을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찾지 않고 교육 내적인 측면에서만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 ③ 양적 확대 정책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학교의 팽창이 교육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하여 주도되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공급자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학교의 팽창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어 사회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학력경쟁으로 발현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31. 다음 글에 나타난 각 건축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는 지형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과 문화적 환경 등을 반영하여 건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장소성을 읽어내는 그의 시각은 탁월하며 대다수의 작품에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때때로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조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하여 건축을 고유의 장으로 만든다. 주변과 고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닫힌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건축개념은 기존의 논리와 규칙 그리고 질서를 초월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 우연성과 영감(靈感) 등을 선호한다. 그의 창조적 디자인 개념은 자연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도출되고,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창출되었다. 게리는 탈구조주의 계열인 해체주의 건축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렇게 평가되는 것을 만족스러워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랜 생활습관과 순수 예술에 대한 열정에서 그의 건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도시와 건축이라는 두 차원에서 프랑스 집합 주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모색했다. 기계 문명 사회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주택으로서 ① 개인의 독립성과 가족단위의 편의성, 세대의 독립성을 각각 충족할 것, ② 건설부채의 규격화와 공업생산을 통한 건설기술 향상, ③ 기술에 의한 조립 시공력 향상으로 건설시간을 줄이고 원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을 시도하였다.

(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유기적 건축'이란 시간, 장소, 사람에 어울리는 건축이다. 시간에 어울리는 건축이란 건물은 마땅히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세기 건물은 설계 당시에 통용되는 자재와 방법을 사용해야 마땅하다.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이란 자연환경 및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되도록 자연적 특징을 많이 살리는 건물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어울리는 건축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일차적 사명으로 여기는 건축을 말한다.

(마) 김수근(金壽根)은 한국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매개성을 주목하였다. 이것은 주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독특한 가치체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유교적인 인습으로 인해 신분과 성, 연령에 따른 활동범위가 분명히 정해지고 공간이 분리되는데, 이것을 한국 전통건축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매개공간이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는 누마루와 대청, 그리고 마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건축작품에서 김수근은 다양한 기능의 장소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공존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기능을 지니는 공간을 삽입하여 그 공간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보 기>

ㄱ. 건축물 A는 건축가의 어린 시절의 막연한 기억을 형상화한 '물고기' 및 '파리 툰 '뱀'이라는 특이한 오브제를 이용하여 비(非)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축조되었다.

ㄴ. 건축물 B는 구관과 신관 두 개의 건물로 기능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리셉션홀이 이를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ㄷ. 건축물 C는 건축물 주변의 강 의 수면을 건축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수변(水邊)에 연결하여 보행자 동선을 설정함으로써 공간적으로는 지역 전통적 건축물에서 보이는 중정(中庭)과 건축물 주변을 에워싸며 형성된 회랑 간의 관계

를 연상시키고 있다.

ㄹ. 건축물 D는 벼랑의 바위턱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는데, 돌벼랑과 비슷한 느낌의 돌벽들을 세워 은신처의 느낌을 주며, 거의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창출한다.

ㅁ. 건축물 E에서 조립식 판으로 구성된 각 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와 완전히 독립되어 설치되는데, 각 세대는 골조 사이의 절연체 위에 얹힌다. 기본 유형으로 구성된 세대는 부엌, 부모침실, 자녀방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공장에서 제작되고 현장에서 조립되는 것이다.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① | ㄱ | ㄷ | ㄴ | ㄹ | ㅁ |
| ② | ㄱ | ㄷ | ㅁ | ㄹ | ㄴ |
| ③ | ㄴ | ㄹ | ㄱ | ㄷ | ㅁ |
| ④ | ㄷ | ㄱ | ㅁ | ㄹ | ㄴ |
| ⑤ | ㄹ | ㄱ | ㅁ | ㄷ | ㄴ |

32. 다음 글을 읽고 착한 사람들을 모두 고르면?(단, 5명은 착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며, 중간적인 성향은 없다.)

주현 : 나는 착한 사람이다.

영숙 : 주현이가 착한 사람이면, 창엽이도 착한 사람이다.

혜정 : 창엽이가 나쁜 사람이면, 주현이도 나쁜 사람이다.

창엽 : 명진이가 착한 사람이면, 주현이도 착한 사람이다.

명진 : 주현이는 나쁜 사람이다.

A : 위 사람들 중 3명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착한 사람이고, 2명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나쁜 사람이야. 위의 얘기만 봐도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B : 위 얘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냐? 아 잠시만. 알았다. 위 얘기만 봤을 때, 모순되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이 3명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구나.

A : 그걸 바로 알아차리다니 대단한데?

- ① 영숙, 혜정, 명진
- ② 영숙, 혜정, 창엽
- ③ 주현, 영숙, 혜정
- ④ 영숙, 창엽, 명진
- ⑤ 주현, 창엽, 명진

33. (가)~(다)는 고려시대 문인들이 삼국시대에 대하여 저술한 글 중 일
부이다. (가)~(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 원한을 풀도록 하였으나 길으로는 따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명령을 어기어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그 망
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

(가) 성상 폐하께서는 “오늘날 학사·대부들이 오경·제자의
글 및 진한 역대 사서(史書)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
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
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
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
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솔밭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
의로서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
다. 또 그 고기(古記)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
적(事蹟)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
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백
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후
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름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
며,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
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매,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
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
다. 지난번에 『구(舊)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
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
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했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
(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
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다시 편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
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
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에 방사(放士)
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
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
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
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
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
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다) 신라 고사(古事)에 이르기를 “하늘이 금궤를 내렸으
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고 했는데 그 말이 궤이하여 믿
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역사서를 편찬함에 그 전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또 들으니 “신라인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고, 고구려 역시 고신씨(高
辛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고씨라 했다.”고 한다. 또 고
사에 이르기를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같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또 “진·한 난리 때에 중국인이 해
동(海東)으로 많이 도망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의
선조가 어찌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어찌 국가
를 향유함이 이렇게 장구하였는가! 백제의 말기에 이르
러서는 행하는 일이 도에 어긋남이 많았으며,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고 고구려와는 계속 화호하여 침략하
고, 이익을 따르고 편의를 좇아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빼앗아가기를 마지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이웃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국가의 보배”라는 말과
다르다. 이에 당나라의 천자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서

- ① (가)~(다)의 저자 모두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관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 ② (나)와 (다)는 자국(自國)의 과거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기술을 포
함하고 있다.
- ③ (나)의 저자와 (다)의 저자는 결국 비현실적인 전승을 사서에 기록하
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④ (가)~(다)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의 ㉠과 ㉢, (나)의 ㉢, (다)
의 ㉠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다.
- ⑤ (나)를 보면, 당시 일반 백성에게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널리 구전
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기존 사서(史書)보다 자세하지 않았다.

3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파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서 말한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때 노동자 자신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의 생존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에서 기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인간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 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탈상품화란 시민이 단순히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 수동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 자신의 인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다. 탈상품화는 개인적·사회적 필요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내재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스터(Lister)는 탈가족화를 ‘개인의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스핑-앤더슨도 탈상품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제기한다.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그가 사용한 탈가족화 지표를 통해 구체화 된다. 탈가족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수당과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노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는 가구의 복지 책임을, 후자는 가구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탈상품화가 무급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 간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보장’이다. 마치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수준이라고 정의한 탈상품화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리스터의 문제의식이 탈상품화가 여성을 분석대상에 포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탈상품화가 남성

이 유급노동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화되었다면, 탈가족화는 여성이 가족관계, 결혼, 돌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화된 것이다.

리스터의 탈가족화가 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개념화된 반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상품화를 위한 조건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탈상품화가 남성만이 아닌 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여성의 상품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탈가족화라고 개념화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완화’인 것이다.

- ①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탈상품화 정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② 재교육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진정한 탈상품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③ 탈가족화를 돌봄 책임의 사회화로 정의하는 관점은 에스핑-앤더슨의 견해에서 볼 때, 가정 내 여성의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④ 한편에서는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이해하는 준거로 접근하는 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화의 전제로서 돌봄 책임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 ⑤ 탈상품화 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진영의 비판 중 하나는 논의의 대상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로 제한하여, 여성을 복지국가의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35. 다음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경제학과 인류학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두 학문은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목적에서 탄생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예측을 위한 학문이다. 돈을 가진 자들은 자신처럼 돈을 가진 다른 이들의 향후 선택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온갖 종류의 투자와 관련해서 탄생했고 또 그런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자신이 설명하는 바로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달리 말해 경제학은 경제학에 익숙한 사람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전적으로 경제학적 원칙에 의해 형성된 제도들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학문분과로서의 경제학은 자신의 연구대상의 본질을 동시에 정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학의 학문적 조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에 반해 인류학은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류학은 분석자들의 세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이론적인 변수들이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을 미개인에 대한 연구로 간주하던 시절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이나 관심, 욕망이 자기 자신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당연히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연구대상의 관심이나 욕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이루어진다. 말리노프스키가 남태평양 트로브리안드 섬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설명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학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면 인류학은 집단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학은 흔히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미개사회의 선물경제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회의 중요 인물들은 재화를 소유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화를 주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 지위, 명예, 도덕적 순결성 등과 같은 일련의 '가치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태도이자 오직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속에는 이미 사회적 관계를 사물로 환원시키는 모종의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현실세계에서 소고기와 사회적 명예 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누군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뿐이다. 경제학 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행동을 욕망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자연스럽게 쾌락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소고기는 식욕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 하지만 타인들이 당신을 똥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역시 기쁨을 준다. 이성적인 행위자라면 매순간 각각의 기쁨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만족의 예상치이다.

결국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은 '사회'라는 존재를 지위버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 모든 사회관계를 사물로 환원하고 그 결과 개인과 사물로만 구성된 세계를 상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왜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지, 한 지역에서는 비만으로 간주되는 체형이 다른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몸매로 간주되는지 등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은 결국 사회 또는 문화와 같은 개념의 필요성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 ① 글쓴이는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 ② 글쓴이는 경제학의 학문적 전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글쓴이는 경제학과 인류학의 점점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④ 글쓴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⑤ 글쓴이는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이 현실세계를 개인과 사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다.

3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두 개의 상이한 기능을 꿈의 형성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꿈의 사고의 생산과 이것을 꿈의 내용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의 바로 밑에 1925년에 덧붙인 각주에서 “꿈의 근본은 사고의 특별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 (...) 그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꿈의 작업’이다.”라고 말해 앞의 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진술에서 부각되는 단어는 꿈의 사고와 꿈의 작업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꿈의 사고는 본능의 관념적 표상체와 관련된다. 꿈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잠재적 꿈의 사고, 관념적 표상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징적 이미지로 변형되어 명시적 꿈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재현 과정이 꿈의 작업이고, 이 과정이야말로 꿈꾸기의 본질이라고 프로이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이처럼 꿈의 작업을 통해 무의식의 상징적 재현성을 강조한 대목을 라깁이 바로 이 꿈의 작업 속에서 언어적 무의식을 읽어내고 있는 대목과 병치시켜 놓아보자. 라깁은 우선 “증상, 꿈, 언어의 실착, 조크에는 동질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프로이트의 관점을 그대로 따른다. 이어서 꿈의 작품의 대표적 메커니즘이 압축과 치환이란 점을 고려하면서 압축과 치환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법칙이 이 네 현상에 작동한다고 본다. 그것이 무의식의 법칙이다. 그는 이 법칙이 언어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법칙과 동일하다고 말해 압축과 치환이라는 꿈의 작업 과정이 다름 아닌 언어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에크리』의 「무의식에서 글자의 기능」에서는 “꿈의 작업에서 그처럼 특권적 역할을 하는 이 두 메커니즘과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상동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수사적 질문을 던졌다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어서 “꿈의 작업은 시니피앙의 법칙을 따른다.”는 직설적 표현도 잊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압축과 치환의 개념이 구조주의 언어학자 야콥슨이 언어의 두 축이라고 설명한 은유와 환유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 ① 꿈의 사고와 작업
- ② 은유와 환유의 구조
- ③ 꿈의 작업과 무의식
- ④ 압축과 치환의 메커니즘
- ⑤ 무의식과 언어 구조의 상동성

37. 다음은 대화의 협력 원리와 대화 격률의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각각의 대화 격률의 위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8. (가)~(마)의 논증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 것들을 모두 고르면?

그라이스(P. H. Grice)는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전제한다. 대화는 참여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발화의 연속체가 아니라 언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라이스는 협력 원리라고 한다. 협력 원리는 일반 원리와 네 가지의 대화 격률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원리 :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게 하라.

대화 격률 :

가. 양의 격률

① 대화의 목적에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②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나. 질의 격률 :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 것이 되도록 하라. 즉,

①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②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다. 관계의 격률 : 관련성이 있게 하라.

라. 태도의 격률 :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라. 즉,

① 불명료한 표현을 피하라.

② 중의성을 피하라.

③ 간결하게 하라.

④ 순서에 맞게 하라.

< 보 기 >

대화 격률의 위반 사례

ㄱ. A : 저녁 모임에 무엇을 입고 나갈까?
B : 너의 검정색 원피스는 정중해 보여서 좋고, 분홍색 투피스는 밝아서 좋아. 흰복도 잘 차려 입으면 우아하고 청바지 차림은 젊고 발랄해 보이는데, 너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거야.

ㄴ. A : 영호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면서 성실하지도 않아. 그렇지?
B : 나는 내일 교수님을 뵈러 갈 거야. 너는 어때?

ㄷ. A :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B : 글썽요. 저런 상태로 사나흘 가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여섯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식물인간처럼 오래 동안 누워 있는 사람도 있지요. 좀 더 지켜보시지요. 기적같이 깨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던가요?

ㄹ. A :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B :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지요.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ㄹ | ㄷ |
| ③ | ㄷ | ㄹ | ㄱ | ㄴ |
| ④ | ㄷ | ㄴ | ㄷ | ㄱ |
| ⑤ | ㄴ | ㄷ | ㄱ | ㄹ |

(가) 사치가 심한 여성이 내 친구인 김 군을 사랑한다면, 김 군은 사랑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김 군이 고시학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치가 심한 이 양이 김 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 내 친구 김 군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 살인 사건을 저지른 남자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 씨는 알고 있다. 최 씨가 이 범죄를 저지른 남자이다. 그러므로 최 씨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박 씨는 안다.

(다) 김 군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이 양은 체코어와 러시아어를 배웠으며, 박 군은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배웠고, 정 양은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웠다. 만약에 프랑스어가 독일어보다 쉽고, 러시아어가 체코어보다 어렵고, 독일어는 체코어보다 쉽고, 이탈리아어가 프랑스어보다 쉽다면 위의 언어들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 두 가지를 배운 사람은 박 군이다.

(라) 어떤 이는 경제적 빈곤이 범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과 범죄 발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마) 전공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인 김 군, 이 군, 박 군은 법학, 경영학, 그리고 철학 중 하나를 전공하여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응시자는 박 군과 동일한 대학 출신이다. 이 군은 철학을 전공한 응시자의 옆집에서 살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응시자보다 최종 학력이 높은 김 군은 이 군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로 40분 걸린다. 그러므로 이 군은 법학을 전공한 응시자이다.

(바) 아무도 철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수는 무척 외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철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철수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① (가), (다)
 ② (마), (바)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마)
 ⑤ (나), (라), (바)

39. 다음 (가), (나)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민족주의의 또 다른 속성인 우월성은 역사, 주로 ‘민족사’를 통해 강조된다. ‘국사’는 민족사의 다른 이름이다. 민족사-국사는 민족의 우월성을 천명하는 초월적 역사다. 그것은 조선사와 고려사, 삼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역사를 구성해 내는 거룩한 서사(敍事)를 말한다. 국사는 민족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국사는 아득한 민족의 기원부터 설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장대한’ 역사다. 민족의 기원은 언제나 신성해야 하기 때문에 단군이 통치하던 신화시대로부터 시작한다. 민족주의 역사학이 구성하는 역사는 단일한 코드, 즉 민족에 의해 구성된다. 시간 위에 전개된 인간의 삶의 자취는 무한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코드 역시 무수하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은 모든 코드를 민족으로 환원한다. 따라서 국사의 주어는 언제나 ‘민족’으로 단일화된다. 예를 들어 금속활자는 기술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인쇄·출판의 역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지식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사대부의 형성과 관련하여 읽어낼 수도 있다. 또 그 활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 결함도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은 그것을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업적’이란 단일한 해석으로 이해한다. ‘활자’와 근접해 있는 다른 코드들의 어떤 해석도 배제된다. 역사에 작동하는 민족주의는 이미 결론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민족은 인종학적 특징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지만, 그 역시 동일하다고 믿어지는 내부에서 수많은 차이와 차별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의 국민 국가에서의 유전적 혈통이란 실재하는 구성원의 생물학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원수의 관계인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는 어떤 인종적 차이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단지 문화적으로 구분될 뿐이다. 더욱이 유태인은 디아스포라 이후 2천 년에 걸쳐 혼혈이 거듭되었기에 순수한 유전적 유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혈통, 혹은 유전적으로 순수한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한반도 남부의 가야인들의 일본인과의 혼혈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인과 일본인 역시 혼혈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국민에는 고구려인만이 아니라 말갈인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1만 명의 거란인이 살았다. 몽고 지배기에 몽고족과의 혼혈이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의 왕이 몽고의 공주와 결혼하고, 고려인이 원의 수도를 방문하고, 몽고인이 고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혼혈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발해가 한국사 속으로 편입되자, 젊은이들은 발해의 광대한 영토에만 주목할 뿐 발해 인구의 반수가 말갈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한다. 외관상 아시아 계통의 황색 피부를 가졌다다면, 그 민족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없다. 조부가 중국인인 ‘한국인’은 다른 ‘한국인’과 외관상 전혀 구분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는 그저 한국인일 뿐이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혼혈인은 외견상 구분되지만, 한국어를 쓰고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인 생활습관을 따른다. 그는 한국인이다. 개인의 생물학적 존재는 텅 빈 시니피앙일 뿐이다. 그 텅 빈 공간에 국가-사회는 ‘민족’이란 시니피앙을 채워 넣었다. 개인은 후천적으로 국가에 의해 한국인으로 제작된 것이다.

주 1) 시니피앙 :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자체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外的)형식을 이르는 말. 말이 소리와 그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로 성립된다고 할 때, 소리를 이룬다.

2) 시니피에 :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르는 말

① 민족의 우월성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 ② “문화는 인간이 처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명제는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③ 혈통의 순수성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인이 한민족의 테두리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단일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④ 개별적인 인간들이 동일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한 장치의 하나인 순수성은 기존의 종족적인 요소를 선택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종족적인 요소의 하나인 단일 혈통의 순수성은 유전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 ⑤ 구텐베르크 활자는 표음문자(알파벳)였고, 한국의 활자는 표의문자(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의 활자에 비해 2세기 앞서 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금속활자를 우월한 민족 문화의 거대한 상징으로 삼는 것은 ‘활자’와 근접해 있는 다른 코드들의 어떤 해석도 배제하기 때문이다.

40. (가)~(라)의 인과적 가설에 대한 테스트 방식 중 가장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 1970년대에 영국의 연구자들은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9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지원자들을 임의로 두 군으로 나누어서, 실험군에 할당된 47명에게는 매일 비타민 C를 포함하는 아스코르브산 3g을 복용하게 하였으며, 대조군에 할당된 44명에게는 가짜 약(placebo)을 복용하게 하였다. 물론 피실험자는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지 못했다. 3일째 되는 날, 이들 91명 모두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접종하였으며, 두 군에서 각각 18명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 1980년대에 영국의 연구자들은 ‘경구피임약이 유방암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유방암 판정을 받은 36세 이하의 여성 755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이들을 실험군에 할당하였다. 또한 그들은 실험군에 속하는 각 여성에 대응하여 유방암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을 고르는 방식으로, 755인의 여성들을 대조군에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 실험군에 속하는 여성들의 약 62%인 470명이 4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사용해왔으며, 대조군에 속하는 여성들의 약 52%인 390명이 4년 이상 경구피임약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 2000년대에 미국의 연구자들은 ‘적색가공육이 직장암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미국 21개 주에서 50세부터 74세에 이르는 148,6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택한 식생활의 결과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중 적색가공육의 하루 섭취량이 3온스 이상인 남성과 2온스 이상인 여성은 실험군에 할당되었고, 적색가공육의 하루 섭취량이 1.5온스 미만인 남성과 1온스 미만인 여성은 대조군에 할당되었다. 조사 결과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대조군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30~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보스턴 대학의 연구자들은 1966년부터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에 토대하여 ‘아스피린이 심장마비를 예방한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심장마비 환자 325명을 실험군에, 기타 환자 3,807명을 대조군에 할당하였다. 조사 결과 실험군에 속한 환자들 중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람은 0.9%인 데 비해서 대조군에 속한 환자들 중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람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나), (라)
- ⑤ (다), (라)